

화려했던 박항서·베트남 축구 5년 동행

‘썰딩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와 5년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자신의 고별 무대였던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 컵(미쓰비시컵)에서 준우승으로 ‘라스트 댄스’를 마쳤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16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태국 빠툼 타니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과의 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지난 13일 베트남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2-2로 비겼던 베트남은 1·2차전 합계 2-3으로 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2018년 대회 우승 이후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아쉽게 숙적 태국의 2연패를 막지 못했다. 박 감독은 이 대회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이끌었다. 그는 베트남축구협회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번 대회를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베트남축구협회와 공조 속에 유소년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체계적으로 조인했다. 특히 A대표팀과 23세

첫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아시안게임 4강 동남아시안게임 2연패·AFC U-23 준우승 ‘역사’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 /베트남축구협회 홈페이지

이하(U-23) 대표팀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끌어내며 동남아 강호로 우뚝 서게 했다.

박 감독은 거스 허딩크 감독이 지휘한 2002 한일월드컵에서 코치로

힘을 보태며 4강 신화에 일조했다.

그해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감독으로 팀을 이끌었지만 동메달에 만족했고, 이후 프로축구 경남FC·전남 드래곤즈·상무 사령탑을 지냈다.

2017년 10월 베트남 지휘봉을 잡고 지도자로서 전환점을 맞았다.

2018년 스즈키컵(현 미쓰비시컵)에서 10년 만에 베트남의 우승을 지휘했다. 이듬해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에 올랐다.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했는데 베트남 축구가 월드컵 2차예선을 통과해 최종예선에 진출한 건 처음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6위까지 끌어올렸다. 박 감독이 부임할 당시 랭킹은 130위권이었다.

박 감독은 부임 초기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을 겸임했다.

2018년 AFC 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을 결승에 올리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동남아 국가 최초의 기록이다.

이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베트남 최초로 아시안게임 4강 진출을 이끌며 4위를 차지했다. 동남아시아(SEA)게임에선 2연패를 달성했다.

그라운드에선 엄격하지만 밖에선 따뜻하고 세심한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진두지휘했다. /뉴시스



박지우, 동계세계대학경기 은메달 박지우가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 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3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세계대학경기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에서 역주하고 있다. /뉴시스

설날장사씨름, 19일부터 영암서 개최

24일까지 영암실내체육관...KBSN·KBS 1TV 생중계



단체전 예선을 시작으로 20일 태백급 예선과 여자부 개인전 및 단체전 결승전, 21일 태백장사(80kg 이하) 결정전, 22일 개최식과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 23일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 마지막 날인 24일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모든 경기는 맞불기(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예선전부터 준결승전(3·4위전 포함)까지는 3전 2선승제, 5-8위 순위결정전은 단판제, 장사결정전은 5전 3선승제로 결정되며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장사 인증서, 장사 순회배, 장사 트로피, 경기력향상지원금 등이 주어진다.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전남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영암군체육회와 영암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자체급별 장사전(태백급·금강급·한라급·백두급), 여자체급별장사전(매화급·국화급·무궁화급), 여자부단체전, 3개 종별 27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영암=김형두 기자

대회는 19일 여자부 개인전 및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 훈련장·숙소 광주 이전 추진

시와 협의 진행...숙소, 영주체육관 인근 아파트 고려



2022-2023 도드람 V리그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경기, AI페퍼스 응원단이 환호하고 있다.

여자프로배구 광주 AI페퍼스가 훈련장과 선수단 숙소를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AI페퍼스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선수단 훈련장을 광주 영주체육관 등으로 옮기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단 숙소는 훈련장에서 가까운 영주체육관 인근 아파트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장과 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AI페퍼스는 오는 5월부터 광주에서 2023-2024시즌 대비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훈련장 등이 광주로 완전

이전되면 광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페퍼스는 영주종합체육관의 페퍼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훈련을 하기 위해 3-4시간 버스를 타고 용인까지 이동했다.

또 훈련장까지 옮겨지면 광주지역 배구 저변확대도 기대된다.

비시즌기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팬 행사를 수시로 열수 있으며 배구를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1일 코치 등의 행사도 진행할 수 있다.

정성우 AI페퍼스 사무국장은 “홈 경기를 앞두고 용인에서 훈련을 한 뒤 광주로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숙소까지 광주에 마련되면 선수들의 연고팀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고 배구 저변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장과 숙소가 광주에 마련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 조규성 유럽 이적 여름에 무게

2022카타르월드컵의 ‘라이징 스타’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소속팀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스페인 전지훈련에 동행하면서 일단 국내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성은 지난 16일 전북 선수단과 함께 스페인으로 떠났다.

K리그1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르베야에서 한 달여간 전지훈련을 통해 2023시즌을 준비한다.

해외 복수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아 온 조규성은 전북과 스페인행을 함께 하면서 국내 잔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축구계에 따르면 조규성은 사실상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유럽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구단 관계자는 “조규성이 일단 동계 훈련을 함께하기로 했다. 아직 잔류와 이적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